



전 군민을 총 동원하라!
의령 의병제전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승전한 역사적 현장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곳. 반도의 남쪽 끝자락인 경남 의령에서는 홍의장군 곽재우와 임란의병을 기리는 의병제전을 해마다 열고 있다. 지난 197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축제는 올해로 32회째. 지난 2001년부터는 ‘군민의 날’과 함께 열리고 있다. 축제는 4월 22일을 본 행사의 날로 하여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 이어졌다.

의병의 모습을 계승한 축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선비였던 곽재우는 왜병에 맞선 관군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는 등 나라와 백성이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살던 유곡면 세간마을 앞 느티나무에 북을 매달아 쳐서 의병을 모았다. 그리고 육로진출의 요충지인 정암진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첫 승전을 올리게 된다.

이날이 바로 4월 22일로, 기록상으로는 임란 당시 최초의 의병이다. 이 의병전투에서 곽재우 홍의장군과 그의 지휘 아래 있던 17인의 장령과 수많은 의병들은 합세하여 정암진을 비롯해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지정면 상산리 기강나무에서도 승전을 하게 된다.

“임진년 왜침으로 강토가 유린되고 국운은 풍전 등화와 같이 위급하였을 때 망우당 곽재우 장군과 휘하 17장령을 비롯하여 수천의 의병용사들은 구국제민의 대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용전 순국하였으니 이 나라 창조의 시초요, 이 땅 의령은 의병의 발상지로서 충절어린 터전이며 빛난 역사의 현장”이라고 밝힌 취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의병제전은 “온 겨레의 정성과 의기를 한데 모아 의병의 위대한 호국정신을 받들어 기리면서 후대에 길이 계승”하기 위해 의령군민들이 올리는 제전이다.

축제는 17일 열린 임란의병학술토론회를 시작으로 하지만 21일 펼쳐진 전야제가 본격적인 출발이

다. 이날 오후 4시에 곽재우 장군이 북을 매달아 치면서 의병을 모았던 유곡면 세간리 마을 앞에 서 있는 현고수에서 제례와 함께 성화봉에 불을 붙여 서 의병탑으로 봉송한다. 이어 해질 무렵이 되면 북놀이와 축등행렬이 의령읍 시가지를 돌며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어둠이 내린 8시가 되면 축등점화와 함께 전야제의 꽃인 불꽃축제가 의령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 놓는다.

이튿날의 행사는 추모제향에서 시작한다. 추모제향은 의병이 첫 승전을 거둔 4월 22일을 기념하여 아침 8시에 곽재우 장군을 비롯한 17인의 장령



임진왜란 당시 선비였던 곽재우는 경남 의령에서 의병을 모아 왜군의 침략에 맞섰다.

과 수많은 의병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충익사 사당에서 올린다. 곽재우 장군의 후손과 군민대표, 학생 등이 참여한 추모제향은 제례와 함께 제례악이 연주되면서 헌화 및 분향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9시부터는 의병제전의 본 행사인 시가행진과 기념식이 있다.

시가행진은 의령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의령읍 사거리리를 지나 공설운동장 서문으로 들어가 운동장에 모이게 된다. 의병출정거리를 재현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축하 퍼레이



본 행사 전날 진행되는 전야제는 축제의 흥을 한껏 돋군다.

드도 있다. 뒤이어 각 읍·면의 특성과 특산품을 소개하는 가장행렬이 뒤를 따른다. 이와 함께 의령군 소재 학교 학생과 사회단체 회원들도 의병과 관련한 갖가지 차림새로 시가행진의 행렬을 이어나간다. 시가행진의 마지막 행렬까지 공설운동장에 들어서면 운동장 동편에 마련된 성화대에 불이 밝혀

지고 기념식이 거행된다.

축제로 뒤덮인 시가지

의병제전이 진행되는 의령은 말 그대로 축제의 현장이었다. 얼핏 눈에 띄는 프랭카드만도 족히 100개는 넘어 보였다. 걸어서 2~30분 남짓이면 돌아볼 수 있는 읍내 거리를 온갖 장식물들이 뒤덮은 것이다. 축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의령군청을 찾았다. 하지만 정작 축제를 알리는 홍보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의령군민들이야 행사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니 별다른 안내책자가 없어도 되겠지만 타지에서 찾아온 손님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어리둥절하다.

군청을 나와 곧바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객재우장군을 비롯해 의병들을 모신 충익사가 있다. 벌써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찾은 충익사는 70년대식 건축의 전형 모습을 보여준다. 전승 기념비답게 위풍당당한 기념탑. 전통 목조 건축 양식을 흉내 낸 건물들은 하나 같이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다. 하얗게 칠해진 회벽이 이 곳이 위패를 모신 사당임을 잘 드러내 주지만 어딘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 입구에 자리한 의병탑은 지난 72년에 지어졌고, 건물들은 78년에 들어섰다.

박정희 대통령이 충익 정신의 계승, 총력안보의 정신적 지주, 국난 극복의 산 교육장 등을 내세우며 의병탑을 중심으로 의병 전승지를 성역화할 것을 지시해 충익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임란 후 조야에 남겼다면 나라님이 내린 벼슬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귀양살이를 해야 했던 망우당(객재우의 호)의 정신은 찾아보기 힘든 총력안보의 정신적 지주. 충익사는 그렇게 70년대 건물에 70년대식으로 해석된 의병정신을 담고 있다.

사당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객재우 장군이 사용했던 장검(보물 제671호)과, 마구(안장), 포도연, 화초문백자 팔각대접 등이 보관되어 있는 기념

관이 있다. 안쪽 벽은 모두 5점의 전적도가 장식하고 있는데 소중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념관이지만 너무 단출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충익사 바로 뒤편에는 활쏘기 터인 홍의정이 있다. 이 곳에서는 의병제전 행사의 하나인 전국 궁도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국궁 즉 우리 활을 쓰는 단체들이 모여 치르는 궁도대회에는 전국에서 꽤나 많은 궁사들이 왔지만 정작 구경꾼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는 대회는 축제를 장식하기 위한 곁다리 행사로 비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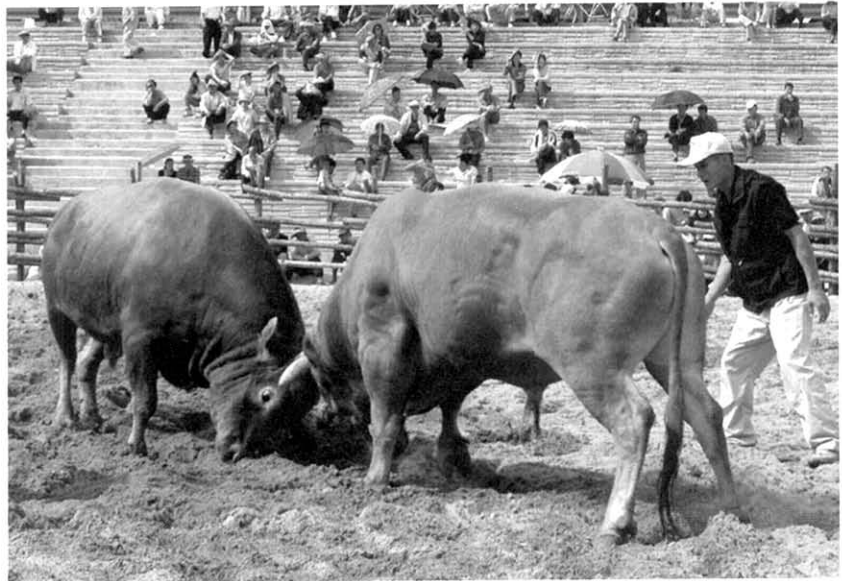
축제의 흥이 가득한 소싸움

여러 행사가 있지만 무엇보다 축제의 흥을 돋구는 곳은 의령천 둔치에서 벌어지는 소싸움이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전국 소싸움대회는 의령이 내세우는 자랑거리이다.

전국에서 250여 마리의 싸움소들이 출전하여 열띤 싸움을 벌이는데, 자고로 싸움이라면 무엇이든 볼만한 구경거리이지만 무뎠던 성질을 지닌 소가 드러내는 격렬한 야성은 꽤나 박진감이 넘친다. 싸움소는 뿔의 생김을 매우 중시하는데 뿔이 잘 생겨야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싸움 기술도 소마다 조금씩 달라서 해설가의 구수한 말솜씨를 살려주는 소재를 주고 있었다. 소싸움은 갑종과 을종 그리고 병종 등 3개 체급으로 나누어 경기를 벌이는데 싸움소의 무게를 달아서 580킬로그램 이상 650킬로그램 이하는 병종에 출전하고, 651킬로그램 이상 740킬로그램 이하

는 을종에 그리고 741킬로그램 이상은 갑종에 출전한다. 최근에는 소싸움을 가지고 경마처럼 돈벌이로 삼으려는 자치단체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령군은 바로 옆의 진주시와 소싸움장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소싸움판에 꽤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다.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감하는 전야제에 이어 22일의 본 행사는 무엇보다 거창한 가장행렬단이 볼





학생, 군민 할 것 없이 의병과 관련한 갖가지 차림새로 시가행진을 한다.

거리이다. 이른 아침 광재우 장군 등의 위패를 모신 충익사 사당에서 추모제향을 마친 후 시작되는 가장행렬단은 의령읍을 비롯해 열두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의령군의 전 주민이 각각 자기 고장의 특성을 바탕으로 꾸며서 참가한다.

모든 군민이 참가하는 시가행진

의령에 소재한 각급 학교 학생과 사회단체 회원들도 의병과 관련한 갖가지 차림새로 시가행진의 행렬을 이어간다. 각 단위마다 많게는 1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으니 20여 개 가까운 가장행렬단의 규모만도 1,000여 명을 훌쩍 넘는다. 가히 전 군민이 총 동원되는 셈이다.

가장행렬단은 출발장소인 의령고등학교에서 시작해 읍내 중심지를 거쳐 공설운동장으로 향하는데 2킬로미터 남짓한 거리를 행렬단 전체가 지나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대단한 규모다. 행렬단은 온갖 장식과 각 면의 전통과 풍광을 상징하는 이동 차량 그리고 축제에 참석하는 여러 단체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내용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외지의 손님이 거의 없어 멋진 가장행렬단을 의령군민들만의 잔치로 끝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다.

행렬단이 읍내를 통과해 공설운동장에 모두 모이면 기념식이 시작된다. 거의 전 군

민이 한 곳에 모여 잔치 마당을 벌이는 것이다. 기념식이 끝나면 여흥을 돋우기 위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의령 큰줄땡기기를 볼 수 없는 것이 큰 아쉬움이었다. 큰줄땡기기는 의령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워낙 거대한 규모의 줄을 만들고 수 천 명이 참가해야 하는 터라 3년마다 한번씩 시연한다.

의령 큰줄땡기기는 의령국민학교에서 남산천으로 빠지는 큰길을 경계로 물아래, 물위로 나누어 물아래는 의령동동, 남산동과 무전, 용덕, 정곡일



곽재우 장군을 비롯한 의병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중익사

홍의장군 곽재우 캐릭터



부까지 한편이 되고 물위는 의령서동, 중동, 상중 하리와 가례, 화정 칠곡, 대의 일부가 같은 편이 된다. 줄은 물아래가 암줄로서 쌍줄에 큰고를 달며 물위가 솟줄로 외가닥 줄이며 방아채(방아쇠, 비너 또는 비내란 말로 쓰임)를 꽂을 수 있게 만든다. 자료를 보니 큰줄(목줄, 머리줄)은 직경이 5자 정도에 길이가 200자 이상이었고 변줄(고리줄, 새끼줄, 가지줄)은 양편 모두 100가닥이 넘었다니 암줄에 400여 동, 솟줄에 250여 동의 벧짚이 쓰였음만 보아도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 엄청나게 컸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줄맹기기는 양편 장수가 말을 탄 채 대기를 힘껏 흔들며 정결하고 경험 많은 원로의 지휘 아래 양편 비장들이 전력을 다해 고를 걸게 된다. 고를 걸지 못 하면 물 아래편이 지는 것이 관례이며 비너를 꽂지 못하게 되거나 승부가 확실치 않으면 이월 초 하룻날 다시 겨루게 되어 있으며 물아래가 이기면 그 이듬해 물이 들지 않아 대풍을 이룬다고 하며 물위편이 이기면 우순풍조하여 역시 풍년이 든다고 했다 한다.

올해 행사는 큰줄맹기기를 대신 먼 대항 여성줄

다리기가 진행됐지만 의병제전이 전국적인 축제가 되려면 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큰줄맹기기를 해마다 시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운 의병정신을 담아내는 축제

의병제전은 4년 전부터 군민의 날과 함께 진행되면서 의병정신을 기리는 의미보다는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 더 큰 뜻을 두고 있다. “군민의 화합과 단결은 물론 고장의 발전을 꾀하는데도 큰 뜻이 있다”는 윤재환(의령군청 문화체육과) 씨의 말처럼 의병제전은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의령 주민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주민 잔치 마당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의병정신이 과거 유신시절의 호국정신에 갇혀 새로운 호국의 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행사 도중 시설물이 무너져서 몇몇 주민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간 것도 안타깝다. 소싸움장 유치를 위한 요란한 행사 중심의 축제를 넘어서 참다운 의병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의병제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행사장을 떠나왔다.

〈김종철〉